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종교



무관심이 찰치는 세상을 지옥이다(루가 16, 19-31(다))

장학생 선발 남가주사랑의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목사 노창수, 1111 N. Brookhurst Street., Anaheim, CA 92801) 부설 사랑장학회(후원회장 이교식)가 제16기 장학생을 모집한다. 선발 인원은 약 100명이며 장학생 1인당 2,0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 선발 신청 자격은 미국내 정규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으로 기독교 신자가 아니어도 지원할 수 있으며, 해외 선교지의 선교자가 추천하는 현지인 신학생 또는 신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 재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 장학금 선발 신청은 kdfsarang.com에서 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10월 31일이며, 선발 결과는 11월 20일 발표한다. 장학금 수여식은 12월 11일,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열린다.

사랑장학회는 지난 2007년 5월 차세대 킹덤 드리머 양성 및 이웃사랑 실천을 목적으로 출범한 이래 매년 100-150여 명에 이르는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1,500여 명의 장학생을 선발했으며 총 270만여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문의: (714) 772-7777, kdfs.sarang@gmail.com

제14회 사랑의 찬양제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회장 이영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선교사들과 신학생들을 후원하기 위해 '제14회 사랑의 찬양제'를 열었다.

지난 25일 오후 5시30분, 나성한미교회(담임목사 홍충수, 2727 Durfee Ave., El Monte, CA 91732)에서 열린 찬양제에는 남가주장로성가단을 비롯해 동부사랑의교회, 오렌지 미션 콰이어, CTS 미션 콰이어, 보블리스 선교합창단, 오렌지 카운티 콰이어, 유니온교회, LA Soli Deo, 로스앤젤레스 체임버 콰이어, 남가주장로성가단등 합창단과 교회 성가대 10개 팀이 무대에 올라 풍성한 찬양의 축제를 펼쳤다.

이영수 회장은 "찬양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들과 공감할 수 있는 감사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문의: (714) 887-4454, (909) 319-2158

자본주의 경제에서 삶의 최대 가치는 돈을 버는 일이다. 물론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는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 자본주의 경제 아래에서 돈을 많이 소유한 '부자'와 돈이 없는 '빈자'라는 두 계층이 생겨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빈부의 격차를 해결하고자 칼 막스라는 학자는 공산주의를 주창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만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돈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는 여러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일부 부유층 사람들은 하룻밤에 천만 원이 넘는 돈을 호화 요정에서 쓰고, 병들고 가난한 어느 아버지는 천만 원의 상해 보험금을 노리고 아들의 손가락을 자르고는 감옥에 들어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했다. 국가의 경제를 위하여 월남전에 나가서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중동에 간 근로자들은 비지땀을 흘렸으며, 몇 만 원이 안 되는 월급으로도 열심히 일한 젊은 여성들의 정성이 모여서 수출 강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경제 발전의 진정한 목적인 삶의 질적 성장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의 삶은 혼자서 이뤄지지 않는다. 누구든지 두 사람(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고, 누구든지 이웃과의 만남과 관계가 없으면 정상적인 인간으로 성장하지 못 한다. 그래서 인간(人間)의 간(間)자는 사이를 뜻한다. 결국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 혼자서만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극심한 이기주의와 탐욕이 판을 치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해졌다. 이 모든 현상들은 인간 관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인간 관계는 먼저 서로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에서 비롯한다. 안 보면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정상적인 인간 관계이다. 이러한 정상적인 인간 관계를 방해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보다도 물질에 대한 탐욕이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부자의 죄악은 그가 돈이 많았다는 것도 아니고, 그가 거지인 라자로를 멸시하거나 모욕을 주었기 때문도 아니다. 이 부자의 잘못은 단순히 가난한 라자로에게 무관심했다는 점이다. 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된 원인은 자신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이웃 라자로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은 것 때문이다.

맹자님은 우물가에서 물에 빠질 위험에 처한 어린이를 보면, 먼저 달려가 그를 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심이라고 가르쳤다. 측은지심(惻隱之心)이 메말라버린 사회는 사람의 본성이 없어진 비인간적인 사회이며, 결국 우리 스스로가 지옥을 미리 만드는 셈이다.

어떠한 물질이라도 그 쓰임새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된다. 아무리 맛있

는 음식도 배가 고픈 경우라야 그 가치가 발현되며 이미 배가 부르니 이에게는 큰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돈이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니다. 돈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쓰여질 때가 가장 좋은 것이다. 그리고 누구에게 돈이 필요한지를 알려면 무엇보다도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세계 경제는 침체에 빠졌지만 수십 년 전과 비교한다면 먹을 것, 입을 것이 더 풍족하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듬으려는 따뜻한 마음이다. 딱 한 개라도 나누어 먹으려는 따뜻한 가슴이 아쉬운 것이다. 물질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냉혹해질 수밖에 없다.

가슴이 따뜻하려면 무엇보다도 겸손과 청빈의 가치를 배워야 한다. 겸손과 청빈의 가치는 나눔에서부터 시작한다. 이제부터라도 어떤 걱정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모두 하느님께 맡기고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서, 내 이웃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대해 생각하고 그를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누도록 행동하자.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고 비우고 미소와 친절로 이웃에게 다가가자.

-변희선 신부-

타운뉴스 업소록

“리스팅 신청하세요!”

타운뉴스 업소록 신청서

Phone: _____

주소: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업소명(한국): _____

영문: _____

업종: _____

-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판을 위해 지금 곧 수록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Tel 562.404.0027 Fax 562.404.0039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info@townnewsusa.com